

소말리아 테러단체, 유명 쇼핑몰 테러 협박... 서방세계 긴장

〈알사바브〉

알카에다 연계조직, 현지 추종자 부추기는 영상메시지 배포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언급...각국 경제·예방활동 강화

소말리아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사바브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쇼핑몰에서 테러를 벌이겠다고 협박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알사바브가 복면을 쓴 조직원을 등장시켜 추종자들에게 쇼핑몰에서 테러를 벌이도록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가 배포됐다고 전했다.

이 조직원은 “무자헤딘(이슬람 전사)들이 서방에서 전세계의 미국·유대인 쇼핑몰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면서 미국 몰 오브 아메리카, 캐나다 웨스트 애드먼턴몰, 영국 옥스퍼드 쇼핑거리, 프랑스 포르테알과 레 카르탕 등을 언급했다.

앞서 알사바브 가담자 4명은 2013년 9월 케냐 나이로비의 웨스트케이트 쇼핑몰에서 무차별 살상극

을 벌여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해 67명이 숨지기도 했다.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조직인 알사바브의 쇼핑몰 테러 위협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중 안전과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연방수사국(FBI) 등 사법기관들과 함께 테러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 존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오늘 몰 오브 아메리카에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테러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알사바브나 ISIL(미국 정부가 IS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 각국 추종자들에게 자생적인 공격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들 집단이 특정 장소에 대한 공격을 촉구

하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소말리아 출신 이민·이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당국은 알사바브의 새로운 테러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박 영상에서 언급된 쇼핑몰 중 한 곳인 미네소타 주 블루밍턴의 몰 오브 아메리카 측은 성명을 내고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경계와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을 겨냥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위협 징후는(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존슨 장관은 이번 협박과 관련, “이게 바로 국토안보부가 예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해 행정부와 의회간 ‘예산 줄다리기를’ 꼬집기도 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불법체류자 수백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해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서 7세 여아 자살폭탄 테러... 24명 사상

휴대폰시장 번잡한 시간 노려 폭발

배후 불분명...보코하람과 수범 유사

나이지리아 북동부 상업중심지 포트스쿰의 시장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여자 어린이가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 5명이 사망했다.

이날 오후 나이지리아 요베 주(州) 포트스쿰의 시장에서 7세가량의 소녀가 폭탄을 터뜨려 5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자경단장과 목격자들이 전했다.

소녀는 자경단이 지키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려다 4번이나 제지당하자 출입 제한용으로 쳐놓은 밧줄 사이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경단장은 “지난 1월 자폭테러 이후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해 여성의 시장 출입을 금해왔다”면서 “우리가 출입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있을 때 소녀가 몸을 구부려 밧줄을 통과하려 했고 그 때 폭탄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휴대전화 매매와 수리가 주로 이뤄지는 곳으로 폭탄테러는 시민이 몰리는 휴일 오후 번잡한 시간에 발생했다.

폭탄테러의 배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간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이 유사한 테러를 저질러 왔다.

지난 1월에도 이 시장에서 15세 정도의 소녀를 포함한 2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벌여 6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요베와 보르노, 아다마와 등 3개 주는 보코하람이 득세한 지역이다. 보코하람의 무차별 테러로 2009년 이후 1만3000명 이상이 살해당했고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리비아 이란대사관 폭탄 공격 당해 리비아 이란대사관 폭탄 공격으로 건물 일부가 부서진 리비아 트리폴리의 이란 대사관저 밖에서 보안요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트리폴리 외교단지 내 이란 대사관저 외곽 경비초소 부근에서 급조폭탄을 1개가 터진 뒤 다른 1개가 관저를 향해 투척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건 직후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日 아베 총리, 방미 때 미국 의회 연설 추진

과거사 관련 한국 등 배제 ‘반쪽 사과’ 우려

한인단체·지한파 의원들 연설 반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방미 때 미국 의회의 연설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리를 사실상의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백악관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권 의회 지도부가 이를 수락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연방의회 대표단에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에 대한 적극적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하원에서 연설을 한 일본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1954년), 기시 노부스케(1957), 이케다 하야토(1961년)로 아베 총리의 연설이 성사되면 54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4번째를 기록한다.

특히 아베 총리는 단순히 하원 연설을 넘어 일본 총리 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일본 총리도 상·하원 합동연설을 추진했으나 당시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과거사’를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상·하원 합동연설은 다양한 변수 때문에 아직 불음표”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과거사를 이유로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내

부의 기류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민참여 센터를 중심으로 한인단체들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의식한 친한파 의원들도 의회 지도부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본의 역대 방위부담을 늘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계정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실리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는 일종의 성의표시 차원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과거사 외교’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미국을 넘어 전세계가 ‘정중’이 된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로서는 과거사를 정리하는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표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미국에만 사과하고 주변국들에 끼친 상처와 아픔을 언급하지 않는 ‘반쪽 사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8일 호주 캔버라에서 행한 의회 연설에 준해 미국 의회연설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캔버라 연설은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반성과 함께 과거 호주인들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사과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게 핵심이다. 한국과 중국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에 대한 사과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페리호 침몰... 48명 사망 수십명 실종

화물선과 충돌하며 전복

방글라데시 파드마 강에서 22일 오전 11시50분(현지시간) 여객선이 전복돼 침몰하면서 최소 4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

사건은 방글라데시 중부 파투리아와 다울라트디아를 잇는 항로에서 여객선 ‘MV 모스토파’가 화물선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고 현지 일간 다카트리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8세, 11세 어린이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탑승자 가운데 50여 명은 스스로 헤엄쳐 나오거나 주민이 구조했다고 현지 경찰 간부 라키부즈 자만은 AFP 통신에 말했다.

아직 여객선 탑승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실종자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의 강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보통 승

선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방글라데시 내수운송항국(BIWA) 간부 제멜미야는 탑승자 수가 140명 이하일 것이라고 AP 통신에 말했지만 다카트리본은 2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3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강이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는 느슨한 안전기준과 정원 초과 탑승이 빈번한 탓에 여객선 사고가 잦다.

지난해 8월에도 파드마 강에서 정원을 초과해 25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전복돼 승객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전원주택지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1084㎡(328평)
- 33필지 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 - 1억 6400만원 (1/2 분할매매 가능)

문의. 010-3605-5000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근처 즉시 입주자
- 감정/시세 - 1억9천만원
- 매매 - 1억 6400만원

광전파크 “빌라”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전파크 빌라 5층 중 4층 20평
- 동남향, 2013년 신축
- 방2, 화1, 거실
- 신우 APT 근처, 즉시 입주자
- 매매 - 9900만원 (대출 4900만원 안고)

오피스텔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문의 010-3605-5000

- 17평, 10층
- 20층중 10층, 코너,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울수리
- 매매 - 5천1백만원

- 29평, 10층
- 양동 하천 방향, 전망 좋음 주거겸 사무실, 전체 울 수리
- 매매 - 7천 2백만원 (일시불 조정가)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 - 1억5천만원정도
- 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 급매가 - 5500만원

근린상가 “지하”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